

일 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실태*

김 현 옥**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moking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One Region*

Hyeon-Ok Kim**

Department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smoking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Chinan County, I us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1,579 students attending twelve middle-high schools from December 1, 1998 to December 20, 1998. I collected and data correlated the using an SPSS-PC⁺. 1. The smoking rate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in Chinan County was 17.9%, relatively high. This smoking rat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der, grade, religion, and economic situation. In males, high school students, non-religious, students low income family students, the smoking rate was higher. The smoking rate of high school students was almost the same as the smoking rate of adults, generally higher than that of foreign teenagers. Because the smoking rate of students in the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and in the first grade of high school was six times higher, increased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during this time in an attempt to curb the sudden increase of the smoking rate. The smoking rate of girl students was 5.0%; this has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from ten years ago. Consequently, counter measures should be taken against the smoking of female students as well as juvenile smoking in general. In addition, the smoking rate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showed interesting differences when correlated with environmental factors. Students with low grades, who are not satisfied with school life, who don't have both parents, who have uncaring parents who are too strict or too arbitrary, who have smoking parents, or who have experienced smoking commonly smoked. Therefore, to lower the smoking rate we should improve the school environment, improve a student's interest in school life. And parents or siblings should lead by example and quit smoking at home. Schools should educate students more effectively concerning the harmful effects of smoking and creat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its dangers. From the beginning, we should teach students never ever to touch cigarettes. 2. The survey discovered that most students started out of curiosity, or solicitation from friends or elders at middle school, and had been smoking one to five cigarettes for more than a year. They obtained cigarettes at stores and most of them have friends who smoke. As a result anti-smoking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at elementary schools prior to middle school. More than 95% of the teenagers who smoke had friends who smoke and smoked out of curiosity or the recommendation of elders. Thus, we must focus on teenagers who smoke in group, rather than individually. Furthermore,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of tobacco sales as well as tobacco cooperation from retailers are needed. While students did not show any mood or academic achievement difference after beginning smoking, 58.1% of the students a health situation that was worse. Juvenile smoking

*본 연구는 1998년 진안군 지역 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에 의해 시행됨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건강증진 연구회

is more harmful to the juvenile than adult smoking is to the adult. This should be focused on in an anti-smoking campaign. 3. Students who smoke had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smoking than students who don't smoke. Students who smoke had a tendency to have a neutral position and are not concerned about smoking compared to non-smoking students. The survey showed that the great number of students had a neutral position. Because this neutrality may increase juvenile smoking, education that provides an exact understanding of smoking should be performed to build the correct attitude toward smoking. 4. Middle school students smoke when angry, gloomy, anxious, alone and when they have some problems to solve, or when they feel inconvenienced in other ways, they smoke to relieve stress. They also smoke due to addiction. Because smoking is not a practical method to relieve stress, a program which helps to acquire positive relief stress should be provided to help reduce smoking. 5. About 65% of students who smoke want to quit smoking because of health problems, 78% of them have tried more than once to quit but failed due to weak will power and peer pressure from friends who smoke. Juvenile smoking is group oriented. Thus, the program that advances less smoking will be the one that focuses on groups. 6. As for advice to students who want to quit smoking, "persuasion" was used most commonly, followed by a "presentation on how to quit smoking". Another method was severe punishment. About 70% of the students wanted the anti-smoking guide at school. 7. Most students (73.5%) had a position that more anti-smoking education at school is needed. Obviously, then, anti-smoking education at middle-high schools should be reinforced. Although the education which explains the harmful influence of tobacco is known as an efficient way to prevent smoking; it does not influence students who already smoke. Therefore, for students who smoke, multi-dimensional approaches must be attempted that include physical training, psychological approaches, consultation and discussion, medical check-ups, audio-visual education techniques, and professional instructors. In addition, because smoking students have more negative or lukewarm attitude to anti-smoking education anti-smoking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through a communicative style by dedicated teachers who care about stud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I. 연구의 필요성

흡연이 여러 질환에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그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의 증가, 공중매체를 통한 교육,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흡연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담배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1997)가 최근에 조사한 각국의 성인 남자 흡연률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가 성인 남자 흡연률 세계 제1위인 것으로 나타나, 세계에서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는 나라의 하나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 나라 10대 학생들의 흡연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흡연자의 대다수는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며, 청소년 흡연자의 급증은 우리 나라에서도 심각한 교육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 흡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19세 이하 청소년의 흡연률이 1980년 22.9%에서 1996년 44.4%로 두배 이상 증가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정건작,

1998).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측면에서 아동으로부터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이시기에 신체적·정서적으로 백해무익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은 청소년의 흡연이 성인의 흡연보다 인체에 더 해롭다는 데 있다. 이는 청소년이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모든 세포 및 조직이 약하고 유해물질 노출에 예민하기 때문이다.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비흡연가에 비해 5.2배 높은 데 반해, 15세 이하에서부터 흡연을 시작한 경우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18.7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흡연 시작 연령이 폐암 사망률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흡연하는 청소년은 흡연하지 않는 경우보다 감기와 폐질환에 더 잘 걸리고 가래도 많이 생기며, 학교에 결석하는 횟수도 비흡연자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또한 청소년 시절부터 흡연을 하게 되면 자연히 흡연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흡연량도 많아지게

되어 담배로 인한 해독에 노출 기회가 증가 되며, 청소년의 흡연은 니코틴 중독을 더 심화시키고, 청소년 탈선의 시작은 흡연으로부터 시작한다(지선하, 1998).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 문제는 우리 나라 보건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진안군 지역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흡연을 청소년의 중요한 보건 문제로 규정하고, 중·고등학생의 흡연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진안군 지역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진안군 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진안군 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률을 파악한다.
- 2) 진안군 지역 흡연 중·고등학생의 흡연양상을 파악한다.
- 3) 진안군 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4) 진안군 지역 흡연 중·고등학생의 흡연 동기 요인을 파악한다.
- 5) 진안군 지역 흡연 중·고등학생의 금연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6) 진안군 지역 흡연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도 양상을 파악한다.
- 7) 진안군 지역 중·고등학생의 학교 금연 교육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III. 문헌고찰

최근 우리 나라 청소년의 흡연률은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 전국의 남자 중·고등학생 흡연률을 조사(서일 등, 1997)에 의하면, 중학생의 흡연률은 3.9% 미만이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이 21.6%, 2학년이 41.0%, 3학년이 41.6%로 그 비율이 아주 높다. 이러한 흡연률은 1988년도에 조사한 것보다 중학생의 경우 2배, 고등학생의 경우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연령의 미국 남, 여 고등학

생의 흡연률은 각각 27%, 28%이고, 일본은 각각 26%와 5.2%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 청소년의 흡연률은 세계 최고에 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청소년의 흡연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첫째, 사회 전체적으로 흡연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며, TV에서 텔런트들과 사회 지도층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는 등 어느 곳에 있건 담배 피우는 분위기가 충만되어 있다. 둘째, 청소년의 흡연을 말리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즉 청소년의 흡연을 말리는 부모, 선생님 그리고 어른이 전과는 달리 거의 없어졌다는 점이다. 셋째,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구입제한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95년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담배 판매소매상들이 이를 잘 지키고 있지 않다. 넷째, 담배회사의 담배 광고는 청소년들을 미래의 고객으로 유혹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화려한 성인 잡지나 경주용 차에서 부착된 담배광고를 보고 흡연은 멋있고, 우아하고, 매력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록 담배회사는 담배광고가 청소년들의 흡연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흡연시작은 흡연하는 친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 흡연 시작 동기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흡연 동기 중 가장 많은 이유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이다. 흡연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98).

흡연은 폐암을 비롯하여 심장병, 호흡기 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육체적 건강에 결정적인 해독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로운 행위인데, 청소년은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모든 세포 및 조직이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배연기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미국에서 발간된 보고에 하면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할 경우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5.2배인데 비해 15세 이하에서부터 흡연을 시작할 경우에는 사망률이 18.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 시작 연령이 폐암 사

망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어린 나이에 일찍 흡연을 시작할수록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 흡연이 나쁜 또 다른 이유는 청소년기의 흡연 시작은 성인에서의 시작보다 니코틴 중독에 더 깊이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흡연 시작 연령이 1세 빨라질수록 심한 니코틴 중독에 빠질 확률이 10%씩 높아진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은 사회규범에서 첫 이탈 행위이며, 이는 다음의 범죄로 쉽게 연결된다는 것과 흡연은 청소년의 불안한 심리와 비행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해로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까지 파급될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한 저산소증은 두뇌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사고 능력과 의욕을 감퇴시키게 된다는 점이다(지선하, 1998).

우리 나라 청소년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이윤재, 1998)에 의하면, 흡연 학생 부모의 흡연률이 71.5%로 부모의 영향이 크며, 친한 친구 중의 흡연자가 91.2%로 비흡연자보다 절대적이며, 흡연동기는 주로 호기심과 친구나 선배의 권유가 66.3%, 담배 구입 장소는 주로 가게에서의 구입이 86.4%로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 흡연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는 남자인 것, 약물사용 시작 연령이 어릴 때, 약물남용 친구들과 어울림, 학업성적 불량, 잦은 결석, 학교 방침에 잘 따르지 않음, 학업에 대한 열의가 낮음, 인습을 따르지 않는 신념이나 태도,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일관성 없는 가족관리, 부모가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종교가 없음, 반사회적 인격양상, 사회적으로 와해된 이웃환경, 우울 및 감각 정서 장애, 감각 추구경향, 과잉운동성 등이었으며, 흡연을 억제시키는 보호인자는 여자인 것, 사회 경제적으로 상류층, 학업성적 우수, 학교방침에 잘 따름,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음, 부모 및 가족과의 가까운 정서적 유대, 부모가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 경우, 종교가 있는 것, 친구나 가족 및 가족 이외의 사람과의 가까운 지지적 관계, 자존심과 자아 효율성이 높은 경우, 창조적인 경우, 높은 사회성과 같은 기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민성길, 1998).

흡연 감소를 위한 전략의 요체는 흡연 감소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건강증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흡연 규제조항을 중심으로 금연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매체와 관련 조직을 통해 금연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특히 흡연 습관의 시작이 대부분 청소년기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공약을 펼쳐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조기 흡연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변중화, 1997).

흡연을 초기부터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부터 흡연의 위해성을 교육시켜 담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여,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담배를 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정건작, 1998).

청소년의 흡연을 법적,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는 금연환경여건 조성을 위하여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 문구 표시, 담배의 광고 및 판촉활동의 제한, 19세미만 자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만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의 허용, 공중 이용 시설내의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구분지정 등을 강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5가지 규정 중에 19세미만 자에 대한 담배 판매금지과 담배 자판기 설치 제한 규정은 주로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한 것으로 엄격히 시행될 경우 청소년의 흡연 예방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변중화, 1997).

전세계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는 담배값이 비싸면 청소년 흡연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담배를 사 피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담배값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대단히 싼 편이다. 담배 값을 인상하면 담배 회사도 수익이 좋아지고 정부의 세수도 증가하고 흡연률도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가의 담배 정책을 쓰고있다(오희철, 1993; 지선하, 1998).

청소년 흡연률 감소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인 흡연률의 감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경험에 의하면 어른들의 흡연률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증만할 때 비로소 청소년들의 흡연률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지선하, 1998).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 청소년의 흡연률이 세계적

으로도 높고, 청소년의 흡연은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흡연문제는 우리 나라 보건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가적·사회적·교육적·가정적 차원에서 합심함으로써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진안군 중·고등학생들의 흡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survey research)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진안군에 소재한 12개 중·고등학교의 1, 2, 3학년 학생 1,5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일반적 특성과 생활환경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종교, 경제상태를 조사하였다. 생활환경 특성은 학생의 성적, 학교 생활 만족도, 부모 생존 여부, 부모의 관심도,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의 흡연여부, 담배 심부름 여부, 흡연 경험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2) 흡연양상

흡연양상은 흡연 학생의 흡연관련 특성과 흡연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흡연 관련 특성으로는 최초흡연시기, 흡연시작동기, 가까운 친구의 흡연정도, 하루 흡연량, 흡연기간, 담배 구입장소를 조사하였다.

흡연에 따른 변화로는 흡연 후 기분의 변화, 성적의 변화, 건강상태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3) 흡연에 대한 태도

타인의 흡연 및 자신의 흡연 계획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남자의 흡연, 여자의 흡연, 중·고등학생의 흡연, 선생님의 흡연, 영화나 TV에서 흡연하는 장면, 부모님의 흡연, 장래 배우자의 흡연, 어른이 된 후 자신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흡연 동기 요인

흡연 학생의 흡연 동기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흡연 동기 요인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는데, 이는 Horn-Waingrow-Coan 흡연 조사에 활용한 “흡연 동기 요인 검사”(Costa, McCrae, Bosse, 1980)를 우리 상황에 맞게 번안한 오영소(1991)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가지 흡연 동기 요인으로 분류된다. 그 7가지 흡연 동기 요인은 부정적 정서 감소, 습관, 중독, 쾌락, 자극, 감각-운동 만족, 불유쾌한 습관 등이다. 이 검사는 “항상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 동기 요인이 되는 정도가 강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흡연 동기 요인이 되는 정도가 약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2였다.

5) 금연에 대한 태도

금연에 대한 태도는 현재 금연의사, 금연을 생각하게 된 동기, 금연시도횟수, 금연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6) 흡연 학생에 대한 지도 양상

흡연 학생에 대한 지도양상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흡연 학생에 대한 지도 양상과 학교에서 금연 지도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7) 학교 금연 교육에 대한 태도

학교 금연 교육에 대한 태도는 학교 금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기간은 1998년 12월 1일부터 1998년 12월 20일까지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을 설명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그런 다음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이 각 교실에 들어가 질문지를 배부한 후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활환경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2) 중·고등학생의 흡연률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률의 차이와 생활환경 특성에 따른 흡연률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3) 흡연 학생의 흡연양상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4) 흡연에 대한 태도는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5) 흡연 학생의 흡연 동기 요인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6) 흡연 학생의 금연에 대한 태도, 흡연 학생에 대한 지도 양상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7) 학교 금연 교육에 대한 태도는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학교 금연 교육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V.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 특성

진안군 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실태 분석을 위해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 수는 진안군 중·고등학교 총 수 2,787명 중 1,597명으로,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의 57.3%에 해당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6.4%(901명)였으며, 여학생이 43.6%(696명)이었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18.4%(293명), 중학교 2학년이 16.8%(269명), 중학교 3학년이 21.5%(344명)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이 17.0%(270명), 고등학교 2학년이 14.5%(232명), 고등학교 3학년이 11.8%(189명)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중학생이 56.7%(906명), 고등학생이 43.3%(691명)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62.9%(1,003명)이었으며, 없는 학생은 37.1%(592명)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 중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34.7%, 554명), 다음이 천주교(18.4%, 294명), 불교(6.7%, 107명), 기타(48명, 3.0%) 순이었다.

학생 가정의 경제상태를 “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6.7%(107명), “중”인 경우가 76.9%(1,219

표 1. 일반적 특성 (n=1,597명)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성 별	남	901	56.4
	여	696	43.6
학 년	중1 학년	293	18.4
	중2 학년	269	16.8
	중3 학년	344	21.5
	고1 학년	270	17.0
	고2 학년	232	14.5
	고3 학년	189	11.8
종 교	기독교	554	34.7
	천주교	294	18.4
	불 교	107	6.7
	기 타	48	3.0
	없 음	592	37.1
경제상태	상	107	6.7
	중	1219	76.9
	하,	260	16.4

*실수와 백분율은 무응답 자를 제외한 것임.

명), “하”인 경우가 16.4%(260명)이었다.

대상자의 생활환경 특성은 표 2와 같다.

자신의 성적을 상위권으로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16.1%(256명), 중위권이 59.4%(944명), 하위권이 24.5%(390명)이었다.

학교 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은 26.4%(420명),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18.1%(288명),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5.6%(885명)이었다.

부모님이 모두 계시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85.6%, 1,363명), 친부나 친모 한 분만 계시는 경우가 9.6%(153명), 친부와 계모 또는 친모와 의부인 경우가 3.2%(51명), 고아 또는 기타의 경우가 1.6%(26명)이었다.

부모님이 학생에게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학생은 75.2%(1,197명),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2.1%(351명),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7%(43명)이었다.

부모님의 양육방식에 대해 엄격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20.3%(324명), 자유로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4.0%(700명),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5.7%(569명)이었다.

부모님 모두 흡연을 하는 경우는 1.4%(22명), 아버지나 어머니 두분 중 한 분이 흡연을 하는 경우는 65.7

표 2. 생활환경 특성 (n=1,597명)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성 적	상	256	16.1
	중	944	59.4
	하	390	24.5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한다	420	26.4
	보통이다	885	55.6
	만족하지 못한다	288	18.1
부모 생존 여부	부모님 모두 계심	1,363	85.6
	친부 또는 친모 한 분만 계심	153	9.6
	친부와 계모/친모와 의부	51	3.2
	고아 또는 기타	26	1.6
부모의 관심도	관심이 많다	1,197	75.2
	보통이다	351	22.1
	관심이 없다	43	2.7
부모의 양육방식	엄격히 대하신다	324	20.3
	보통이다	569	35.7
	자유롭게 해주신다	700	44.0
부모의 흡연여부	부모님 모두 흡연	22	1.4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흡연	1,038	65.7
	흡연하지 않음	519	32.9
담배 심부름 여부	자주 한다	84	5.3
	가끔 한다	462	29.1
	하지 않는다	1,040	65.6
흡연 경험 유무	있다	528	33.1
	없다	1,069	66.9

*실수와 백분율은 무응답 자를 제외한 것임.

%(1,038명)이어서, 부모님 모두 또는 둘 중 어느 한 분이 흡연을 하는 경우가 67.1%(2,6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모두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는 32.9%(519명)이었다.

학생이 담배 심부름을 자주 하거나 가끔 하는 경우는 34.4%(546명)였고, 하지 않는 경우는 65.6%(1,040명)이었다.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은 33.1%(528명), 없는 경우는 66.9%(1,069명)이었다.

2. 중·고등학생의 흡연률

중·고등학생의 흡연률을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 대상자 1,597명 중 현재 흡연 학생은 286명으로, 17.9%가 흡연하고 있었으며, 비흡연 학생은 1,311명으로 82.1%이었다. 따라서 진안군 지역 중·고등 학

표 3. 중·고등학생의 흡연률 (n=1,597명)

흡연여부	실 수	백분율
흡연자	286	17.9
비흡연자	1,311	82.1

생의 흡연률은 17.9%이었다. 이러한 흡연률은 1997년 현재 우리 나라 남녀 중·고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률 조사(서일 등, 1997)에서 보고된 중·고등학생의 흡연률 12.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대상 학교의 소재지가 농촌지역에 있었으므로, 서일 등(1997)이 조사한 농촌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률 11.8%와 비교해 보아도 본 연구 대상 학생의 흡연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른 흡연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chi^2=139.2$, $p=.00$), 남학생의 흡연률은 27.9%, 여학생의 흡연률은 5.0%로, 남학생의 흡연률이 여학생의 흡연률보다 높았다. 남학생의 흡연률이 여학생 흡연률보다 높다는 사실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동안 흡연률의 추이 분석(서일 등, 1997)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의 흡연률은 지난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있다.

학년에 따른 흡연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chi^2=251.6$, $p=.00$), 고등학교 1학년의 흡연률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2학년이 32.2%, 고등학교 3학년이 31.7%, 중학교 3학년이 6.7%, 중학교 1학년이 5.5%, 중학교 2학년이 1.9% 순이었다. 이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묶어서 분석한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흡연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chi^2=242.6$, $p=.00$), 고등학생의 흡연률은 35.0%, 중학생의 흡연률은 4.9%로 고등학생의 흡연률이 중학생의 흡연률보다 높았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고등학생의 흡연률 35.0%는 199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한 우리 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흡연률 38.4%(보건복지부, 1997에서 재인용)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고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한 6개국의 외국 청소년과 우리 나라 청소년간의 흡연률을 비교한 결과(지선하, 1997)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여학생의 경우 3번째로 흡연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률의 차이 (n=1,597명)

특성 구분	흡연자		비흡연자	x ² 값	D.F	p-value
	실수 (백분율)	실수 (백분율)				
성별	남	251(27.9)	650(72.1)	139.2	1	.00
	여	35(5.0)	661(95.0)			
학년	중1 학년	16(5.5)	277(94.5)	251.6	5	.00
	중2 학년	5(1.9)	264(98.1)			
	중3 학년	23(6.7)	321(93.3)			
	고1 학년	107(39.6)	163(60.4)			
	고2 학년	75(32.3)	157(67.7)			
	고3 학년	60(31.7)	129(68.3)			
	중학생	44(4.9)	862(95.1)			
고등학생	242(35.0)	449(65.0)				
종교	기독교	72(13.0)	482(87.0)	15.9	4	.00
	천주교	53(18.0)	241(82.0)			
	불교	23(19.2)	84(87.8)			
	기타	11(22.9)	37(77.1)			
	없음	127(21.5)	465(78.5)			
	유무	159(15.9)	844(84.1)			
	127(21.5)	465(78.5)				
경제상태	상	22(20.6)	85(79.4)	9.1	2	.01
	중	201(16.5)	1018(83.5)			
	하	63(24.2)	197(75.8)			

*실수(백분율)은 무응답 자를 제외한 것임.

생의 경우는 41.6%로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비해 1.5배에서부터 4.5배 이상 흡연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간의 고등학교 3학년 남녀 흡연률 비교에서 이용된 우리나라의 흡연률은 24.5%이었는데, 본 연구 대상 남녀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률은 31.7%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률이 성인의 흡연률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군에 속하는 것처럼, 진안군 지역 남녀 고등학생 3학년의 흡연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겠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생의 흡연률이 39.6%로 약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학교 3학년의 흡연률이 6.7%인 것과 비교할 때, 고등학교 1학년생의 흡연률이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흡연률이 2.5배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선행 연구결과(서일 등, 1997)와 그 추이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간에 약 6배 정도의

흡연률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년이 진급될수록 흡연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이윤재, 1998),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3학년이 되었을 때 흡연률은 가히 놀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하는 시기에 흡연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흡연률 증가를 억제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에 따른 흡연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x^2=15.9$, $p=.00$), 기타 종교를 가진 학생의 흡연률은 2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불교 19.2%, 천주교 18.0%, 기독교 13.0%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학생의 흡연률은 21.5%이었다. 이를 종교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으로 묶어서 분석한 결과, 종교의 유무에 따른 흡연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x^2=7.9$, $p=.00$), 종교가 없는 학생의 흡연률은 21.5%, 종교가 있는 학생의 흡연률은 15.9%로 종교가 없는 학생이 종교가 있는 학생보다 흡연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있는 것은 흡연을 억제하는 보호인자이며, 종교가 없는 것은 흡연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라는 보고(민성길, 1998)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경제상태에 따른 흡연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x^2=9.1$, $p=.00$), 경제상태가 "하"인 학생의 흡연률은 24.2%이었으며, "상"인 학생의 흡연률은 20.6%, "중"인 학생의 흡연률은 16.5%이었다. 경제상태가 낮은 학생의 흡연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가정의 경제 상태에 따라 흡연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이계은(199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으로 상류층의 흡연률이 낮다는 민성길(1998)의 보고와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경제 상태가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서는 흡연률은 낮았으나, 경제상태가 중간 수준인 학생보다는 흡연률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환경 특성에 따른 흡연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적에 따른 학생의 흡연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x^2=25.4$, $p=.00$),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의 흡연률이 가장 높아 26.4%의 흡연률을 보였으며, 중간인 학생은 15.7%, 상층인 학생은 13.7%가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학생의 흡연률은 통계적으

표 5. 생활환경 특성에 따른 흡연률의 차이

(n=1,597명)

특 성	구 분	흡연자		x ² 값	D.F	p-value
		실수(백분율)	비흡연자 실수(백분율)			
성적	상	35(13.7)	221(86.3)	25.4	2	.00
	중	148(15.7)	796(84.3)			
	하	103(26.4)	287(73.6)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한다	46(11.0)	374(89.0)	40.2	2	.00
	보통이다	155(17.5)	730(82.5)			
	만족하지 못한다	85(29.5)	203(70.5)			
부모 생존여부	부모님 모두 계신다	226(16.6)	1137(83.4)	13.3	3	.00
	친부 또는 친모만 계심	36(23.5)	117(76.5)			
	친부와 계모/친모와 의부 고아 또는 기타	17(33.3)	34(66.7)			
		5(19.2)	21(80.8)			
부모의 관심도	관심이 많다	203(17.0)	994(83.0)	11.7	2	.00
	보통이다	65(18.5)	286(81.5)			
	관심이 없다	16(37.2)	27(62.8)			
부모의 양육방식	엄격하다	58(17.9)	266(82.1)	18.0	2	.00
	보통이다	73(12.8)	496(87.2)			
	자유롭다	154(22.0)	546(78.0)			
부모의 흡연여부	부모님 모두 흡연	9(40.9)	13(59.1)	8.7	2	.01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흡연	176(17.0)	862(83.0)			
	흡연하지 않음	96(18.5)	423(81.5)			
담배 심부름 여부	지주한다	9(10.7)	75(89.3)	4.9	2	.08
	가끔한다	75(16.2)	387(83.8)			
	하지 않는다	199(19.1)	841(80.9)			
흡연경험	있다	285(54.0)	243(46.0)	698.0	1	.00
	없다	1(0.1)	1068(99.9)			

*실수(백분율)은 무응답 자를 제외한 것임.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x^2=40.2$, $p=.00$),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의 흡연률이 가장 높아 29.5%의 흡연률을 보였으며, 보통인 학생의 흡연률은 17.5%, 학교 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의 흡연률은 11.0%이었다.

학생의 학교생활 요인으로 조사된 성적, 학교생활 만족도와 흡연률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학생의 성적이 낮거나 학교 생활 만족도가 낮은 학생의 흡연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 성적이 낮은 것, 학업에 열의가 없는 것, 학교 방침에 잘 따르지 않는 것 등은 학생의 흡연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라는 민성길(1998)의 보고와 일치하며,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의 흡연률이 제일 높게 나타난 정해룡(198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단지 금연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

생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생활 환경 개선과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가지고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모님의 생존 여부에 따라 학생의 흡연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x^2=13.3$, $p=.00$), 친부와 계모 또는 친모와 의부를 둔 학생의 흡연률이 가장 높아서 33.3%이었으며, 다음이 친부 또는 친모만 있는 학생으로 흡연률이 23.5%, 고아 또는 기타의 경우 흡연률은 19.2%, 부모님 모두 계시는 학생의 흡연률은 16.6%이었다.

부모님의 관심도에 따라 학생의 흡연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x^2=11.7$, $p=.00$), 부모님이 관심이 없이 대하는 학생의 흡연률이 가장 높아 37.2%의 흡연률을 보였으며, 부모님이 보통의 관심을 가진 학생의 흡연률은 18.5%이었다. 흡연률이 가

장 낮은 집단은 부모님이 학생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흡연률은 17.0%이었다.

부모님의 양육방식에 따라 학생의 흡연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x^2=18.0$, $p=.00$), 부모님의 양육방식이 학생을 자유롭게 대하는 경우 흡연률은 22.0%, 엄격하게 대하는 경우는 17.9%, 자유롭게도 엄격하지도 않은 보통인 집단에서 흡연률은 12.8%이었다.

가정생활환경 요인으로 조사된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관심도, 부모의 양육방식과 흡연률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시는 학생들 보다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부모님이 학생에게 관심이 없는 학생이,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이 자유롭게거나 엄격한 학생이 흡연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불화, 이혼 등의 문제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 흡연률이 높으므로 청소년의 금연대책은 우선 가정적인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박명윤(1998)의 보고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써, 청소년 흡연에 대한 대책은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한 자녀와 대화의 단절이나 자유 방임적인 양육태도, 지나친 기대와 간섭, 과잉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님의 흡연여부에 따라 학생의 흡연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x^2=8.7$, $p=.01$), 부모님이 모두 흡연하는 경우 흡연률이 가장 높아 40.9%의 흡연률을 보였으며, 흡연하지 않는 경우 흡연률은 18.5%,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흡연하는 경우 흡연률은 17.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흡연률이 1.94~1.98배 높다는 서일 등(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청소년 흡연의 출발점을 가정으로 보고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는 것이 고등학생들의 흡연률을 증가시킨다는 박명윤(1998)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영국의 건강교육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금연뉴스, 1998), 양쪽 부모가 흡연자일 때 거의 3배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고, 형제자매도 흡연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형제자매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비율이 형제자매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4배나 흡연자가 되고 싶어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영국의 건강교육부의 담배 캠페인 매니저인 카디 아스톤은 "부모가

자녀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담배를 끊는 일"이라고 하였다. 외국의 경험에 의하면 어른들의 흡연률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증만할 때 비로소 청소년들의 흡연률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지선하, 1998), 청소년 흡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가정에서 어른들이 금연을 함으로써 모범을 보이는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금연대책에는 가정에서 어른들이나 형제자매가 금연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담배 심부름 여부에 따른 학생의 흡연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4.9$, $p=.00$). 따라서 담배 심부름 여부에 따라 흡연률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경험 유무에 따른 학생의 흡연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x^2=698.0$, $p=.00$),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의 현재 흡연률은 54.0%이었으며,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의 현재 흡연률은 0.1%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흡연 경험이 있었던 학생이 지속적 흡연자로 될 가능성이 54%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소년 흡연에 대한 대책은 아예 처음부터 담배를 입에 대지 않도록 하는 흡연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흡연의 위해성을 교육시켜 담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3. 흡연 학생의 흡연양상

흡연 학생 286명의 흡연양상 파악을 위한 흡연관련 특성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흡연 학생의 18.2%는 초등학교 때 처음 흡연을 시작하였고, 중학교 때 흡연을 시작한 경우는 59.8%이었으며, 고등학교 때 시작한 경우가 22.0%이었다. 흡연 학생중 약 60% 정도가 중학교 때, 약 20% 정도는 초등학교 때 흡연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교육의 시작 시기를 어느 때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를 고려한다면, 다수의 학생이 흡연을 시작하는 중학교 이전인 초등학교 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 청소년의 흡연 연령이 점차 낮아져 초등학교 5~6학년 때에도 흡연하는 경우가 있으며(김대현, 1998), 따라서 흡연과 건강에 관한 교육은

표 6. 흡연관련 특성 (n=286)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최초 흡연시기	초등학교	52	18.2
	중학교 1학년	31	10.8
	중학교 2학년	68	23.8
	중학교 3학년	72	25.2
	고등학교 1학년	50	17.5
	고등학교 2학년	7	2.4
	고등학교 3학년	6	2.1
흡연 시작동기	호기심	130	45.4
	친구·선배의 권유	76	26.5
	스트레스해소	41	14.3
	기타	39	13.8
가까운 친구의 흡연정도	모두 흡연	81	28.4
	대부분 흡연	110	38.6
	몇몇만 흡연	81	28.4
	흡연하지 않음	13	4.6
하루 흡연량	1-5개피	157	56.9
	6-10개피	66	23.9
	11-15개피	28	10.1
	16-20개피	11	4.0
	21개피이상	14	5.1
흡연기간	6개월미만	54	19.3
	6개월이상-1년미만	25	8.9
	1년이상-2년미만	62	22.1
	2년이상-3년미만	73	26.1
	3년이상	66	23.6
담배 구입장소	가게	182	63.9
	친구	53	18.6
	집안어른의 담배	20	7.0
	기타	30	10.5

*실수와 백분율은 무응답 자를 제외한 것임.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정건작(1998)의 견해와 일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흡연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호기심 때문인 경우가 45.4%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나 선배의 권유가 26.5%,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가 14.3%, 기타 몇몇이 보여서·어른처럼 느껴져서·반발심으로·체중조절을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흡연을 하게된 경우가 13.8%이었다. 흡연을 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흡연을 시작하게된 동기의 변화 추이를 조사한 서일 등(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를 시작한 초기에는 호기심으로 흡연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 들어 친구의 영향으로 흡연을 시작하는 예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여전히 호기심에 의해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으며, 친구나 선배의 권유에 의해서 흡연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의 흡연이 호기심과 교우관계와 같은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까운 친구 모두가 흡연하는 경우는 28.4%, 대부분이 흡연하는 경우는 38.6%, 몇몇만 흡연하는 경우는 28.4%여서, 흡연 학생의 95.4%는 흡연하는 친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건작(1998)은 흡연하는 학생은 친구가 흡연자인 경우가 90%로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에 의해 영향을 매우 크게 받기 때문에 흡연하지 않는 친구를 사귀는 경우에 비해 흡연하는 친구를 사귀는 경우 비흡연 청소년이 흡연자가 될 확률이 9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주변 친구들이 흡연하는 것을 보고 흡연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담배를 접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의 흡연은 집단으로 감행되므로(김대현, 1998),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은 또래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성례(1997)의 지적에서 나타나듯이, 흡연하는 청소년중 95% 이상이 흡연하는 친구를 두고 있고, 흡연이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흡연 청소년에 대한 금연 대책은 개인적인 접근보다는 청소년 또래 집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속적인 금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적일 것이다.

하루 흡연량은 1-5개피 정도 흡연하는 경우가 5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10개피 흡연자로 23.9%이었다. 하루에 담배 21개피 이상(담배 1갑) 흡연하는 학생도 5.1%에 달했다. 서일 등(1997)의 연구에서도 흡연하는 학생들의 하루 흡연량은 1~5개피 사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아서 중학생인 경우 약 70.0%정도, 고등학생의 경우 약 35~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개피 이상 흡연자도 5.4%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1년 이상 흡연을 해온 학생 수는 흡연 학생의 71.8%(201명)에 달하였으며, 그 중 3년 이상 흡연해 온 학생도 23.6%를 차지하였다. 1년 미만 흡연자는 28.2%이었다.

담배 구입은 주로 가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63.9%), 친구나 집안 어른의 담배를 가져다 피우는 경우도 각각 18.6%, 7.0%이었다. 최근 대구지역

청소년 4,445명을 대상으로 담배구입 장소를 조사한 결과(정건작, 1998), 조사 대상의 85.4%가 담배를 주로 가게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와 청소년들의 흡연을 규제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해 오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도 조사되었듯이 63.9%가 가게를 통해서 담배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담배 소매상들의 적극적 협력이 요구된다.

흡연 후 경험하는 기분·성적·건강상태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는 표 7과 같다.

흡연 직후 "기분이 좋아진다"와 "주의 집중이 잘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35.5%이었으며 "기분이 나쁘다"와 "주의 집중이 안된다"는 학생은 13.0%,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51.4%이었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기분의 변화를 경험한 학생보다는 긍정적인 기분의 변화를 경험한 학생이 더 많기는 하였으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학생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경우는 일부이며, 다수가 별다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기분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후 성적이 "많이 나빠졌다"거나 "약간 나빠졌다"고 응답한 학생은 30.1%이었으며, "변화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58.8%, "좋아졌다"는 경우는 11.5%이었다. 따라서 흡연 후 성적이 나빠진 학생이 좋아진 학생보다 많았으나, 다수의 학생은 별다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후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와 "약간 나빠졌다"고 응답한 학생은 58.1%이었으며, "좋아졌다"고 응답한 학생은 1.7%이었다. "변화없다"와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40.2%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흡연 후 학생들이 변화를 가장 많이 인식한 부분은 건강 상태의 변화였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의 50%는 50~60대에 이르렀을 때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사망하고, 비흡연자에 비해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 신생물성 질환, 대사성 질환에 이환되어 고통을 받고 조기에 사망하게 된다. 본 연구 자료에서 흡연 학생의 58.1%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청소년의 세포, 조직, 장기는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며 독성 물질과 접촉 하는 경우 그 손상 정도가 성숙한 세포나 조직에 비해 더 크고, 청소년 시절부터 흡연하게 되면 자연히 흡연기간과 양이 많아지게 되어 그 해독이 성인에 비해 더 커진다(지선하, 1998).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은 건강의 관점에서 더 위험하므로, 금연 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표 7. 흡연 후 변화 (n=286)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기분의 변화	기분이 좋아진다	69	24.3
	주의 집중이 잘된다	32	11.3
	아무렇지도 않다	146	51.4
	기분이 나쁘다	10	3.5
	주의집중이 안된다	17	9.5
성적의 변화	많이 나빠졌다	43	15.0
	약간 나빠졌다	42	14.7
	변화없다	118	41.3
	좋아졌다	33	11.5
	모르겠다	50	17.5
건강상태의 변화	많이 나빠졌다	58	20.3
	약간 나빠졌다	108	37.8
	변화없다	66	23.1
	좋아졌다	5	1.7
	모르겠다	49	17.1

*실수(백분율)는 무응답 자를 제외한 것임.

4. 흡연에 대한 태도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남자의 흡연에 대한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241.1$, $p=.00$). 흡연 학생은 29.3%, 비흡연 학생은 9.1%가 남자의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매우 좋아 보이거나 약간 좋아 보인다)를 보인 반면, 흡연 학생의 15.3%, 비흡연 학생의 59.9%가 남자의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바람직하지 않거나 절대로 피우면 안 된다는 경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중간적인 태도를 취한 학생은 흡연 학생의 경우 55.2%, 비흡연 학생의 경우 31.0%이었다.

여자의 흡연에 대한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98.3$, p

표 8.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흡연태도에 대한 태도 비교 (n=1,597명)

특 성	구 분	흡연자		x ² 값	D.F	p-value
		실수(백분율)	비흡연자 실수(백분율)			
남자의 흡연	매우 좋아 보인다	33(11.5)	14(1.1)	241.1	4	.00
	약간 좋아 보인다	51(17.8)	105(8.0)			
	신경쓰지 않는다	158(55.2)	405(31.0)			
	바람직하지 못하다	37(12.9)	510(39.0)			
	절대로 피우면 안된다	7(2.4)	273(20.9)			
여자의 흡연	매우 좋아 보인다	14(4.9)	20(1.5)	98.3	4	.00
	약간 좋아 보인다	17(5.9)	16(1.2)			
	신경쓰지 않는다	98(34.3)	212(16.2)			
	바람직하지 못하다	63(22.0)	410(31.3)			
	절대로 피우면 안된다	94(32.9)	65(49.7)			
중·고등학생의 흡연	매우 좋아 보인다	21(7.3)	11(0.8)	254.0	4	.00
	약간 좋아 보인다	27(9.4)	28(2.1)			
	신경쓰지 않는다	131(45.8)	217(16.6)			
	바람직하지 못하다	80(28.0)	502(38.3)			
	절대로 피우면 안된다	27(9.4)	552(42.1)			
선생님의 흡연	매우 좋아 보인다	15(5.2)	14(1.1)	76.2	4	.00
	약간 좋아 보인다	8(2.8)	27(2.1)			
	신경쓰지 않는다	117(40.9)	286(21.8)			
	바람직하지 못하다	89(31.1)	618(47.2)			
	절대로 피우면 안된다	57(19.9)	365(27.9)			
영화나 TV 흡연장면	매우 멋있어 보인다	61(21.3)	80(6.1)	109.2	4	.00
	조금 멋있어 보인다	56(19.6)	207(15.8)			
	그저 그렇다	155(54.2)	690(52.7)			
	약간 나쁘다고 생각한다	8(2.8)	205(15.6)			
	매우 보기 싫다	6(2.1)	128(9.8)			
부모님의 흡연	매우 좋아 보인다	4(1.5)	8(0.7)	135.0	4	.00
	약간 좋아 보인다	11(4.1)	19(1.6)			
	신경쓰지 않는다	136(50.7)	233(19.1)			
	바람직하지 못하다	65(24.3)	520(42.6)			
	절대로 피우면 안된다	52(19.4)	440(36.1)			
장래 배우자가 흡연 한다면	적극 찬성하겠다	3(1.0)	9(0.7)	17.8	4	.00
	약간 찬성하겠다	14(4.9)	67(5.1)			
	상관하지 않겠다	40(14.0)	88(6.7)			
	약간 반대하겠다	76(26.6)	352(26.9)			
	적극 반대하겠다	153(53.5)	792(60.6)			
어른이 된 후 흡연계획	피우겠다	102(35.7)	46(3.5)	402.1	2	.00
	어른이 되봐야 알겠다	133(46.5)	338(25.8)			
	피우지 않겠다	51(17.8)	924(70.6)			

*실수(백분율)은 무응답 자를 제외한 것임.

= .00). 여자의 흡연에 대해 흡연 학생의 10.8%, 비흡연 학생의 2.7%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흡연 학생의 54.9%, 비흡연 학생의 81.0%이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중간

적인 태도를 취한 학생은 흡연 학생의 경우 34.3%, 비흡연 학생의 경우 16.2%이었다.

중·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²=

254.0, $p=.00$). 중·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해 흡연 학생의 16.7%, 비흡연 학생의 2.9%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흡연 학생의 37.4%, 비흡연 학생의 80.4%이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중간적인 태도를 취한 학생은 흡연 학생의 경우 45.8%, 비흡연 학생의 경우 16.6%이었다.

선생님의 흡연에 대한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76.2$, $p=.00$). 선생님의 흡연에 대해 흡연 학생의 8.0%, 비흡연 학생의 3.2%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흡연 학생의 51.0%, 비흡연 학생의 75.1%이었다. 신경쓰지 않는다는 중간적인 태도를 취한 학생은 흡연 학생의 40.9%, 비흡연 학생의 21.8%이었다.

영화나 TV의 흡연 장면에 대한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x^2=109.2$, $p=.00$), 영화나 TV의 흡연 장면에 대해 흡연 학생의 40.9%, 비흡연 학생의 21.9%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흡연 학생의 4.9%, 비흡연 학생의 25.4%이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중간적인 태도를 취한 학생은 흡연 학생의 경우 54.2%, 비흡연 학생의 경우 52.7%이었다.

부모님의 흡연에 대한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x^2=135.0$, $p=.00$), 부모님의 흡연에 대해 흡연 학생의 5.6%, 비흡연 학생의 2.3%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흡연 학생의 43.7%, 비흡연 학생의 78.7%이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중간적인 태도를 취한 학생은 흡연 학생의 50.7%, 비흡연 학생의 19.1%이었다.

장래 배우자의 흡연에 대한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x^2=17.8$, $p=.00$), 장래 배우자의 흡연에 대해 흡연 학생의 5.9%, 비흡연 학생의 5.8%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흡연 학생의 80.1%, 비흡연 학생의 87.5%이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중간적인 태도를 취한 학생은 흡연 학생의 14.0%, 비흡연 학생의 6.7%이었다.

어른이 된 후 흡연계획에 대한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

402.1, $p=.00$). 어른이 된 후 흡연을 하겠다는 태도를 가진 대상자는 흡연 학생 중 35.7%, 비흡연 학생 중 3.5%이었으며, 흡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진 대상자는 흡연 학생 중 17.8%, 비흡연 학생 중 70.6%이었다. 어른이 되봐야 알겠다는 중간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의 경우는 흡연 학생의 경우 46.5%, 비흡연 학생의 경우 25.8%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흡연에 대한 태도는 흡연하는 학생이 비흡연 학생보다 흡연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비흡연 학생은 흡연 학생에 비해 흡연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학생이 비흡연 학생에 비해 흡연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는 중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자일수록 흡연 태도가 긍정적이며, 비흡연자일수록 흡연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청소년의 흡연 여부와 흡연 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들(서일 등, 1988; 심영애, 1989; 심은희, 1988; 이계은, 1992; 이승환, 1988; 이영숙, 1982; 지인순, 1989)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만한 사실은 흡연에 대한 중간적인 태도를 취하는 학생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흡연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해 흡연에 대해 바른 태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98). 흡연에 대한 태도와 흡연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흡연에 대해 바른 태도를 형성하지 못한 학생의 수가 많다는 것은 청소년 흡연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이므로, 흡연에 대한 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흡연 학생의 흡연 동기 요인

흡연자의 흡연 동기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흡연자의 흡연관련 행동특성은 7가지 흡연 동기 요인으로 분류되며, 전체 행동 특성의 총 평균 평점은 2.77($\pm .54$)점이었다.

흡연 동기 요인 중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부정적 감정 감소” 요인(3.04점)이었으며, 그 다음이 “불유쾌한 습관(2.92점)”, “중독(2.83점)”, “자극(2.78점)”, “쾌락(2.75점)”, “감각-운동만족(2.66점)”, “습

표 9. 흡연자의 흡연 동기 요인

(n=286)

흡연동기요인	행 동 특 성	평균(표준편차)
부정적정서감소	화가 날 때 담배를 피운다	3.04(0.77)
	울적할 때에 담배를 피운다	3.70(1.09)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담배를 피운다	3.66(1.16)
	외로울 때 담배를 피운다	3.51(1.21)
		3.32(1.26)
불유쾌한 습관		2.92(0.69)
	담배 맛이 불쾌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운다	3.10(1.14)
	담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피우고 지낼 수 있다	3.04(1.20)
	내가 담배를 정말 피우고 싶어서 피운 것이 아니다	2.82(1.17)
	담배 연기를 일단 내뿜으면 맛이 떨어진다	2.71(1.04)
중독		2.83(0.77)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3.35(1.20)
	일시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담배 생각이 간절하다	3.13(1.27)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보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이 더 만족스럽다	3.08(1.28)
	별 어려움 없이 담배를 끊을 수 있다	3.08(1.25)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즐겁지 못하다	2.67(1.13)
	담배없이 살 수 없다	2.48(1.27)
자극		2.78(0.79)
	기분 전환을 위하여 담배를 피운다	3.34(1.21)
	담배를 피우면 활기가 생긴다	2.74(1.17)
	담배를 으시대기 위해 피운다	2.31(1.11)
쾌락		2.75(0.71)
	담배 연기를 깊숙이 들이마실 때 가장 담배 맛이 좋다	3.18(1.15)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해 진다	3.08(1.17)
	마음이 편안할 때 담배를 즐긴다	2.96(1.21)
	담배 맛을 즐길 수 있을 때에만 피운다	2.73(1.19)
	하루 중 특정한 때에만 담배를 피운다	2.67(1.23)
	나에게 담배는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다	2.55(1.15)
	감기가 들거나 목이 아플 때 담배를 즐긴다	2.14(1.14)
감각-운동만족		2.66(0.72)
	담배를 안피울 때 머리가 더 맑은 것 같다	3.30(1.22)
	혀와 입술로 담배의 촉감을 즐긴다	2.56(1.18)
	담배 연기를 바라보는 것이 즐겁다	2.52(1.23)
	담배를 만지작 거리는 것이 즐겁다	2.29(1.19)
습 관		2.55(0.79)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운다	2.99(1.33)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를 피우곤 한다	2.97(1.25)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불을 붙이곤 한다	2.59(1.24)
	언제 담배를 태워 물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담배를 피운다	2.22(1.12)
	담배만 물고 있을 뿐 연기를 들이 마시지 않는다	2.08(1.19)
총평균		2.77(0.54)

관(2.55점)” 요인 순이었다.

부정적 감정 감소 요인 중 높은 점수를 보인 행동 특성은 “화가 날 때 담배를 피운다(3.70점)”, “울적할 때 담배를 피운다(3.66점)”,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담배를 피운다(3.51점)”, “외로울 때 담배를 피운다(3.32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담배를 피운다(3.16점)”, “심기가 불편할 때 담배를 피운다(3.08점)”,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편해진다(3.04점)”

등 이었다.

불유쾌한 습관 요인 중 높은 점수를 보인 행동 특성은 “담배 맛이 불쾌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운다(3.10점)”, “담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피우고 지낼 수 있다(3.04점)” 등 이었다.

중독 요인 중 높은 점수를 보인 행동 특성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3.35점)”, “일시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담배 생각이 간절하다(3.13점)”,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보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이 더 만족스럽다(3.08점)”, “별 어려움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다(3.08점 : 점수가 높을수록 담배가 끊기 어려움을 의미함)” 등 이었다.

자극 요인 중 높은 점수를 보인 행동 특성은 “기본 전환을 위해 담배를 피운다(3.34점)”, “담배를 피우면 활기가 생긴다(2.74점)” 등 이었다.

쾌락 요인 중 높은 점수를 보인 행동 특성은 “담배 연기를 깊숙이 들이마실 때 가장 담배 맛이 좋다(3.18점)”,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해 진다(3.08점)” 등 이었다.

감각-운동만족 요인 중 높은 점수를 보인 행동 특성은 “담배를 안 피울 때 머리가 더 맑은 것 같다(3.30점)”, “혀와 입술로 담배의 촉감을 즐긴다(2.56점)” 등 이었다.

습관 요인 중 높은 점수를 보인 행동 특성은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운다(2.99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를 피우곤 한다(2.97점)” 등 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이유는 주로 화가 나거나, 울적할 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외로울 때 이러한 감정 해소를 위해 흡연을 하며, 불유쾌한 습관이나 중독 등의 이유에 의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담배를 피우는 이유를 조사해보면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것과 오랫동안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서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과도한 긴장감을 느낄 때 담배를 피우면 긴장감이 풀리고 이에 따라 능률이 오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담배를 피우면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성분에 의해서 일시적인 각성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스트레스의 해소와는 무관한 것이다. 스트레스가 생기는 정신적인 배경은 자신의 욕구나 의지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경우,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담배를 피워야겠다는 욕구가 항상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스트레스와 일에 의한 스트레스, 이 두 가지 스트레스가 공존하게 되는데 담배를 피우면 이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스트레스만 해소가 되고, 결국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대로 남는 것이다(황인홍, 1998). 따라서 학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흡연을 통한 긴장감 해소라는 부정적인 방법의 선택보다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긍정적 대처 방안을 습득하도록 도움으로써 학생들의 흡연이 감소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흡연 학생의 금연에 대한 태도

흡연 학생의 금연에 대한 태도는 표 10과 같다.

담배를 “꼭 끊겠다”거나 “가급적 끊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64.8%이었으며, “별로 끊고 싶지 않다”거나 “절대로 끊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22.1%이었다.

금연을 생각하게된 동기는 건강상의 이유(66.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생 신분에 어긋나기

표 10. 금연에 대한 태도 (n=286)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현재 금연의사	꼭 끊겠다	66	23.5
	가급적 끊겠다	116	41.3
	아무생각없다	37	13.2
	별로 끊고 싶지 않다	43	15.3
	절대로 끊고 싶지 않다	19	6.8
금연을 생각하게된 동기	건강때문에	168	66.4
	성적때문에	20	7.9
	처벌이 걱정되어서	16	6.3
	학생신분에 어긋나므로	49	19.4
금연시도 횟수	시도해보지 않음	60	21.8
	1회	46	16.7
	2회	47	17.1
	3회	30	10.9
	4회이상	92	33.5
금연에 실패한 이유	동기부족	18	7.3
	의지력이 약해서	130	52.4
	금단증상	12	4.8
	음주 친구	15 73	6.0 29.4

*실수와 백분율은 무응답 자를 제외한 것임.

때문(19.4%)이며, 성적 때문(7.95%), 처벌이 걱정되어서(6.3%) 등 이었다.

흡연 학생의 78.2%정도가 1회 이상 금연을 시도해 보았으며, 이중 4회 이상 금연을 시도해 본 학생도 33.5%를 차지하고 있었다. 흡연 학생의 21.8%는 금연을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학생의 78.2%가 1회 이상 금연을 시도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지력이 약한 탓(52.4%)이었으며, 그 다음이 친구 때문(29.4%)이었다. 이외에도 동기부족(7.3%), 음주(6.0%), 금단증상(4.8%) 등의 이유에 의해 금연을 실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흡연하는 학생의 약 65% 정도는 건강상의 이유에 의해서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78% 정도는 이미 금연을 한번 이상 시도해 보았으나, 의지력이 약하고 친구들과로 인하여 금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당수의 흡연 청소년이 흡연할 의사를 가지고 금연을 시도해 보았으나 금연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흡연의 경우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흡연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는 한 금연 목표에 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흡연하는 청소년 또래 집단을 대상으로 스스로가 금연을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갖도록 의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돕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7. 흡연 학생에 대한 지도 양상

흡연 학생에 대한 지도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가정에서 흡연하는 자녀에 대한 지도는 주로 “설득”하거나 “금연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각각 47.0%, 27.8%이었으며, “무조건 처벌”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경우는 각각 14.2%와 11.0%이었다.

학교에서도 흡연 학생에 대해 “설득”하거나 “금연 방법 제시”하는 지도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각각 37.6%, 29.4%), “무조건 처벌”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경우는 각각 20.9%와 12.1%이었다.

흡연 학생의 69.1%는 학교에서 금연 지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약간의 조언(21.6%), 약간의 지도(17.0%), 지적(15.6%), 강력한 지도(14.9%) 등의 방법이 좋겠음을 지적하였다. 흡연 학생의 30.9%는 학교에서 금연 지도가

표 11. 흡연 학생에 대한 지도양상 (n=286)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가정에서 흡연 자녀에 대한 지도	무조건 처벌	40	14.2
	무관심	31	11.0
	설득	132	47.0
	금연방법제시	78	27.8
학교에서 흡연학생에 대한 지도	무조건 처벌	59	20.9
	무관심	34	12.1
	설득	106	37.6
	금연방법제시	83	29.4
학교의 금연지도에 대한 생각	필요 없다	87	30.9
	지적해주는 정도만	44	15.6
	약간의 조언	61	21.6
	약간의 지도	48	17.0
	강력하게 지도	42	14.9

*실수(백분율)는 무응답 자를 제외한 것임.

필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금연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은 주로 “설득”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금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무관심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흡연 학생의 69.1%는 학교에서 금연 지도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흡연하는 학생에 대해 학생들이 바라는 금연지도 방법은 강압적이고 강요적인 방법보다는 약간의 조언, 지도, 지적 수준이면 된다는 응답을 한 학생이 훨씬 많았다. 이는 청소년 흡연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요나 억압 등 무리한 지시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는 박명윤(1998)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8. 학교 금연 교육에 대한 태도

학생들의 학교 금연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나타내는 결과는 표 12와 같다.

학교에서의 금연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3.5%이었으며,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1.5%이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금연교육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

표 12. 학교 금연교육에 대한 태도 (n=1,597명)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학교에서 금연교육	매우 필요하다	863	54.1
	약간 필요하다	310	19.4
	잘 모르겠다	238	14.9
	별로 필요 없다	108	6.8
	전혀 필요 없다	75	4.7

*실수(백분율)는 무응답 자를 제외한 것임.

을 한 대상자가 73.5%로 상당수의 중·고등학생이 학교 금연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변종화(1997)는 청소년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효과적인 교육 홍보 활동이 병행될 때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중·고등학교에서의 금연 교육 실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건강과 관련하여 담배의 해독을 설명하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고 흡연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실제로 금연하도록 하는 데는 효과가 별로 많지 않다.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는 충격적 교육요법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곧 효과가 상실되어 두 번째부터는 거의 효과가 없다(신성례, 1997; 지선하, 1998). 따라서 흡연 청소년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의 구성은 단순히 흡연과 건강만을 교육해서는 안되며, 체력 단련을 통한 관계적 접근, 상담과 토론을 통한 심리적 접근, 종합검사와 비디오 시청, 전문의 강사를 통한 의학적 접근 등 다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영훈, 1998). 또한 흡연 학생이 비흡연 학생에 비해 학교 금연 교육에 대해 더 부정적이고, 더 중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마음 문을 열고 금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개인을 향한 대화식 교육을 통해서 금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진안군 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1일부터 1998년 12월 20일까지 진안군내에 소재한 12개 중·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1,59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PC⁺를 이용 전산통계 처리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진안군 지역 중·고등 학생의 흡연률은 17.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고등학생의 흡연률은 우리 나라 성인의 흡연률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으며, 외국 청소년의 흡연률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간의 흡연률은 6배의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의 흡연률은 5.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준은 지난 10년전과 비교할 때 3배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 흡연 학생의 대부분은 중학교 때, 호기심 또는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하루에 1-5개피정도 담배를 1년 이상 흡연을 해오고 있으며, 가게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고, 흡연 학생의 대다수가 흡연하는 친구를 두고 있었다. 흡연후 학생들이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한 부분은 건강상태의 변화였다.

3) 흡연하는 학생이 비흡연 학생보다 흡연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비흡연 학생은 흡연 학생에 비해 흡연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학생이 비흡연 학생에 비해 흡연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는 중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4) 중·고등학생의 흡연은 스트레스 해소, 오랫동안의 습관, 중독등의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5) 흡연하는 학생의 약 65% 정도는 건강상의 이유에 의해서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78% 정도는 이미 금연을 한번 이상 시도해 보았으나, 의지력이 약하고 친구들로 인하여 금연에 실패하였다.

6) 가정이나 학교에서 금연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는 주로 "설득", "금연 방법 제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조건 처벌", "무관심" 등의 부정적인 방법도 사용되고 있었다.

7) 중·고등학생의 73.5%는 학교에서 금연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여성 흡연에 대한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흡연을 예방하는 측면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고등학생이 되어서 갑자기 증가하는 흡연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하는 시기에 또는 다

수의 학생이 흡연을 시작하는 중학교 이전인 초등학교 때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중·고등학생의 흡연은 학교생활요인, 가정생활요인, 흡연환경요인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흡연예방교육과 더불어 학교환경, 가정환경, 흡연이 쉽게 용인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중·고등학생에게 담배의 해독을 설명하는 교육은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고 흡연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실제로 금연하도록 하는 데는 효과가 별로 많지 않으므로, 흡연하는 학생이 금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력 단련을 통한 관계적 접근, 상담과 토론을 통한 심리적 접근, 종합검사와 비디오 시청, 전문의 강사를 통한 의학적 접근 등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4) 청소년의 흡연은 또래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흡연하는 중·고등학생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흡연하는 친구 또래 집단을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의지를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과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감정처리를 위한 긍정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5) 청소년의 흡연과 흡연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관계를 가지므로, 흡연에 대한 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도와야 한다. 흡연에 대해 중간적인 태도를 취하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흡연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이므로 중·고등학생이 흡연에 대해 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담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금연뉴스: '담배없이 자라는 건강한 청소년(Growing up without tobacco)' 1998세계 금연의 날, 담배와 건강, 5월호, 5-6, 1998.
2. 김대현: 바람직한 금연 학교 운영방안, 담배와 건강, 4월호, 8-12, 1998.
3. 민성길: 흡연의 약리학 및 심리학,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편집, 금연지도자교육 교재, p.87-116, 1998.
4. 박명운: 청소년 흡연 실태와 대책, 담배와 건강, 5월호, 7-18, 1998.
5. 박선섭: 우리 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양상, 보건주보, 903, 보건사회부, 1993.
6. 변종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흡연감소 전략, 보건주

- 보, 1137, 보건복지부, 1997.
7. 보건복지부: 97통계연보, 1997.
8. 서 일, 김일순, 지선하, 선동천, 김수윤, 류소연: 한국 중·고등학생의 흡연양상의 변화(1988~1997), 담배와 건강, 8월호, 8-14, 1997.
9. 서일, 이해숙, 손명세, 김일순, 신동천, 최영미: 전국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흡연실태, 한국역학회지, 10(2), 219-229, 1988.
10. 신성례: 흡연 청소년을 위한 자기조절효능감증진 프로그램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11. 심영애: 서울 시내 남녀 고교생의 흡연에 관한 태도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12. 심은희: 서울특별시 여고생의 흡연실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3. 오영소: 청소년 흡연동기 요인과 성격 특성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4. 이계은: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흡연지식, 흡연태도, 건강행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5. 이승환: 서울시내 남자가등학생들의 흡연행태 및 지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6. 이영숙: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17. 이영훈: 금연학교 사례발표, 담배와 건강, 6월호, 6-10, 1998.
18. 이윤재: 학교폭력근절 및 비행예방을 위한 청소년의 금연교육과 그 운동 방향, 한국 금연운동협의회 편집, 금연지도자교육 교재, p.49-75, 1998.
19. 정건작: 흡연 유해 환경 실태와 대책,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편집, 금연지도자교육 교재, p.9-18, 1998.
20. 정해룡, 고교생들의 생활환경에 따른 흡연실태와 그 지도고찰에 대한 연구-마산 시내 남자 고교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21. 선하: 청소년 흡연문제의 심각성,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편집, 금연지도자교육 교재, p.21-36, 1998.
22. 지인순, 중학생의 흡연수용태도 결정요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23.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을!, 1998.
24. 황인홍, 스트레스 해소에는 담배가 좋다?, 담배와 건강, 4월호, 13, 1998.
25. Costa, P. T., McCrae, R. R. & Bosse, R.: Smoking motive factors: A review and replication, The International of the Addictions, 15, 537-549, 1980.